

내 이름은 장조림



인천광역시교육청

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

작가의 말

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
좋은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줘요.
친구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은 친구를 존중하는 표현이에요.
별명보다는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.

"장독대, 어디 가니?"
"내 이름은 장조림이야."





"맞다. 맛있는 장조림이지?"



"할아버지께서 울창한 숲처럼
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
지어 주셨어."



"아름다운 세상을 그릴 거야."



"어디 한번 잘 그려 봐라."

수업 시간이 되었어요.

"우리가 함께 벽화를 그려 볼까요?"

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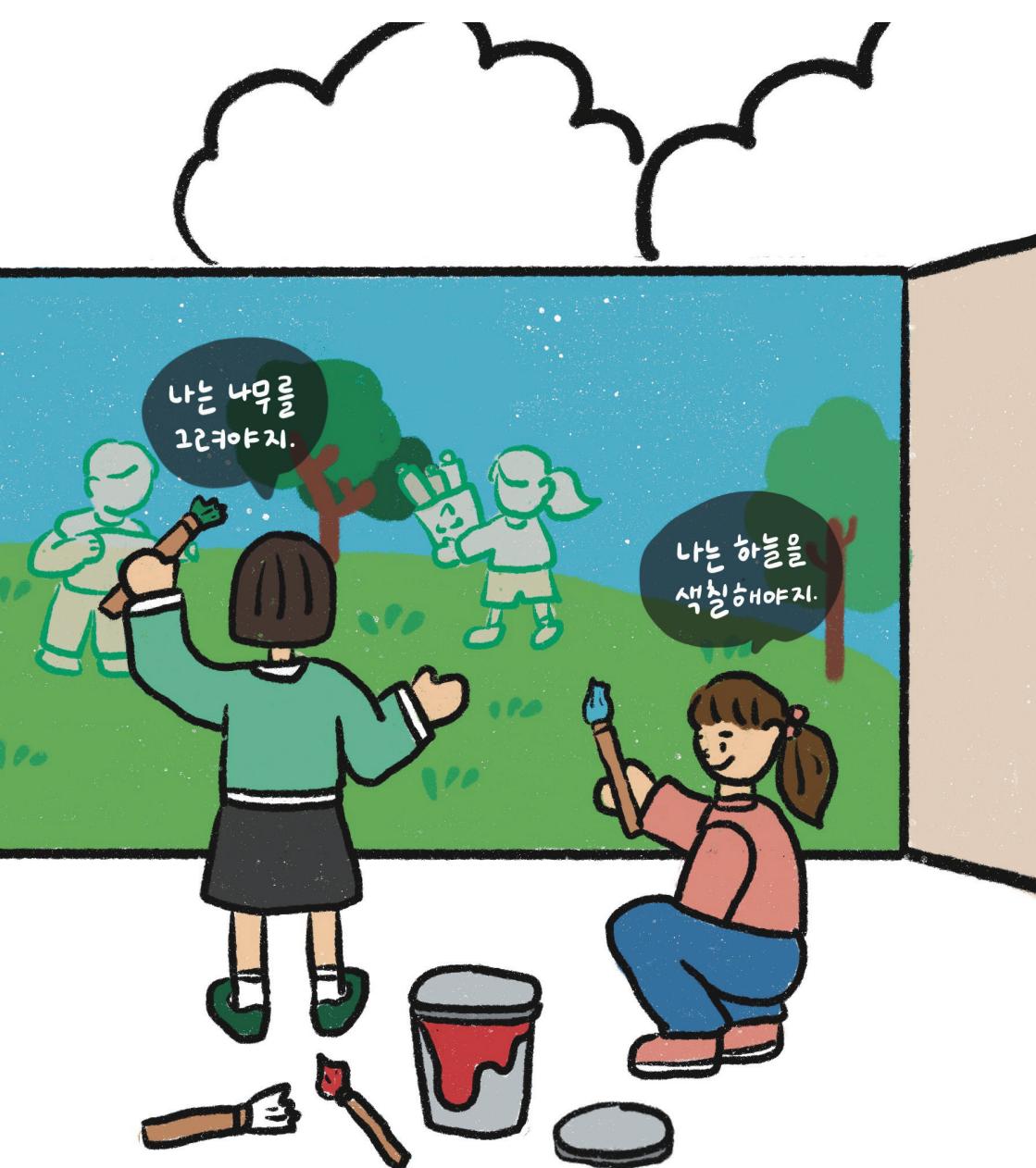


조림이와 민기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.



며칠 후, 친구들이 모였어요.





모두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.



다음날,
아이들이 벽화를 보고 감탄했어요.



"조림아, 도와줘서 고마워.
그리고 장독대라고 놀려서 미안해."

조림이가 빙그레 웃었어요.



점심시간에
축구할래?



이 책을 만들어 주신 분들

지도위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·마을협력과 과장 변종국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·마을협력과 전문관 김태정

기획 및 총괄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·마을협력과 장학사 김태선

글

구소희 인천삼산초등학교
김수진 인천부평서초등학교
조윤경 인천산곡남초등학교
추미숙 인천산곡남초등학교

그림

임주연(마을활동가)

발행일

2023.11.

발행인

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

발행처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·마을협력과

저작권자

인천광역시교육청

선생님과 학부모님께

- ✓ 「인천읽기그림책」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그림책입니다.
- ✓ 책을 선생님과 함께 읽기, 따라 읽기, 혼자 읽기의 과정을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다.
- ✓ 인천의 학생들에게 익숙한 장소와 경험 소재로 제작되었기에 이 책에 소개된 장소에 직접 가보셔도 좋습니다.
- ✓ 「인천읽기그림책」을 통해 인천과 친해지고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자신감이 쑥쑥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.

내 이름은 장조립

